지역 소식통

고창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본격 추진

고창군이 오는 5월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4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고창군 내 소상공인이다.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창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올해 구시포 · 동호 해수욕장 개장일 확정

고창군이 올해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개장일을 확정하고 본격 운영준비에 착수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2025년 고창군 해수욕장 실무협의회'에서 올해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7월10일부터 8월18일까지(40일간)으로 확정됐다.

실무협에선 고창군청 안전총괄과, 보건소, 상하면과 해리면을 비롯해 부안해양경찰서,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총 16여 명이 함께했다.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 해수욕장 개장 일정 및 운영시간 조율을 하였으며, 또한 수상안전관리를 위한 협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주변정리 및 쓰레기 수거 체계 강화 마련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마실축제 5월 2~5일 개최

마실쿠킹 라이브 · 핑크퐁 공연 · 황금몬 선물 등 프로그램 다채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인기 TV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유명한 최현석 셰프가 부안의 백합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마실 쿠킹 라이브(최현석의 봄날의 선물)', 아이들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핑크퐁과 튼튼쌤의 댄스파티', 김연자, 진성, 송가인, 에이핑크 등이 출연하는 개·폐막 공연이 펼쳐진다.

또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인 '황금몬을 선물합니다'는 올해 새롭게 선보인 부안군 대표 축제 캐릭터 '산들마실몬', '붉은노을몬', '푸른바다몬'으로 구성된 '부안몬 프렌즈'를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로 순금 5돈의 카드형 골드바 6개를 제작해 군 관내 3명, 관외 3명 총 6명에게 폐막식 시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행사다.

응모 방법은 축제 기간 중 부안 소재 식당·숙박업소와 축제장 내 부스에서 3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에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 관내·외로 구분된 응모함에 본인의 주소지에 맞게 응모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축제 기간 부안에 오셔서 축제도 즐기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보조금 관리 · 감독 강화"

이학수 정읍시장, "변경사항 발생 시 심의 절차 철저히 이행할 것"

이학수 정읍시장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변경사항 발생 시 심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28일 열린 영상 간부회의에서 "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심의 없이 변경하거나 사후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별로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변경 필요가 발생할 경우 심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시는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심의를 강화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트래블스냅'과 미식의 만남… 하루 기차여행 본격 운영

정읍시, 코레일 · 기차여행 전문여행사 '해밀' 협업… 트래블스냅 전문가 강의도

정읍시가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트래블스냅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생사진 기차여행'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정읍 인생사진 트래블스냅&미식 하루 기차여행(이하 인생사진 기차여행)'은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지역 전담 여행사 해밀(대표 오영진)이 공동으로 기획한 관광상품이다.

일정은 오전 8시 20분에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정읍으로 약 1시간 30분 이동해 정읍역에서 연계차량을 이용해 내장산으로 이동한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옥씨부인전' 촬영지로 유명한 내장산 우화정을 배경으로 트래블스냅 전문 강사와 함께 대표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트래블스냅'의 의미부터 휴대폰 사진 기능 사용 방법, 사진을 잘 찍는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점심 식사는 내장산 특화음식인 '돼지등뼈 버섯콩탕'을 맛볼 수 있다. 이 음식은 스타셰프 이원일이 정읍산 돼지고기, 콩, 버섯 등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깊고 진한 맛을 낸 요리로, 정읍만의 특색을 담았다.

오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전통 양반 가옥인 김명관 고택,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등 정읍의 대표 명소들을 방문하며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여행의 마무리는 정읍의 명물인 쌍화차 거리를 방문해 다양한 주전부리와 함께 정읍 쌍화차의 깊은 맛과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상품 가격은 성인 기준 14만 9000원으로, 왕복 KTX 요금과 현지 연계 차량, 중식, 트래블스냅 강의료와 체험비, 각종 입장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운영은 5월 3일부터 매주 주말(토·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예약은 해밀 여행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7788)로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생활인구 확대 부안사랑인 제도 홍보 강화"

권익현 부안군수, 연석회의서 부안마실축제 안전 개최 등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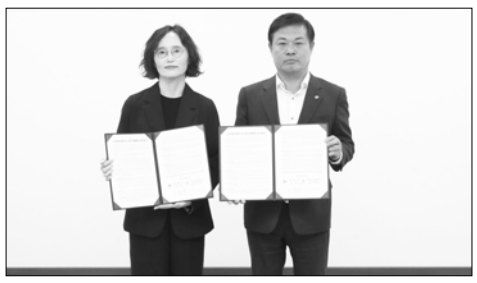
권익현 부안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부안사랑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홍보 강화 등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28일 열린 4월 연석회의에서 "생활인구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안사랑인 제도를 신설, 5월부터 참여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부안사랑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을 유도해 실사용률을 높이고 체감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하고 우수 가맹점 홍보콘텐츠 제작 등 참여 가맹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부안사랑인 제도가 생활인구 확대 정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 집중 모집과 함께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오픈에 맞춰 대대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가 5월 2일부터 4일간 개최된다"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부서는 담당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 · 소아진료센터 가동



정읍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소아야간진료 서비스와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을 위해 정읍아산병원과 손잡고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갔다.

시는 28일 정읍아산병원과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 소아청소년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잔디 정읍아산병원장, 손희경 시 보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내달 1일부터 소아외래진료센터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들을 위한 밀착형 야간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야간·공휴일에는 응급실과 연계한 진료 시스템과 소아과 전문의 당직 체계를 구축해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기타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근 광주, 전주 등 대도시로의 의료 목적 전출을 줄이고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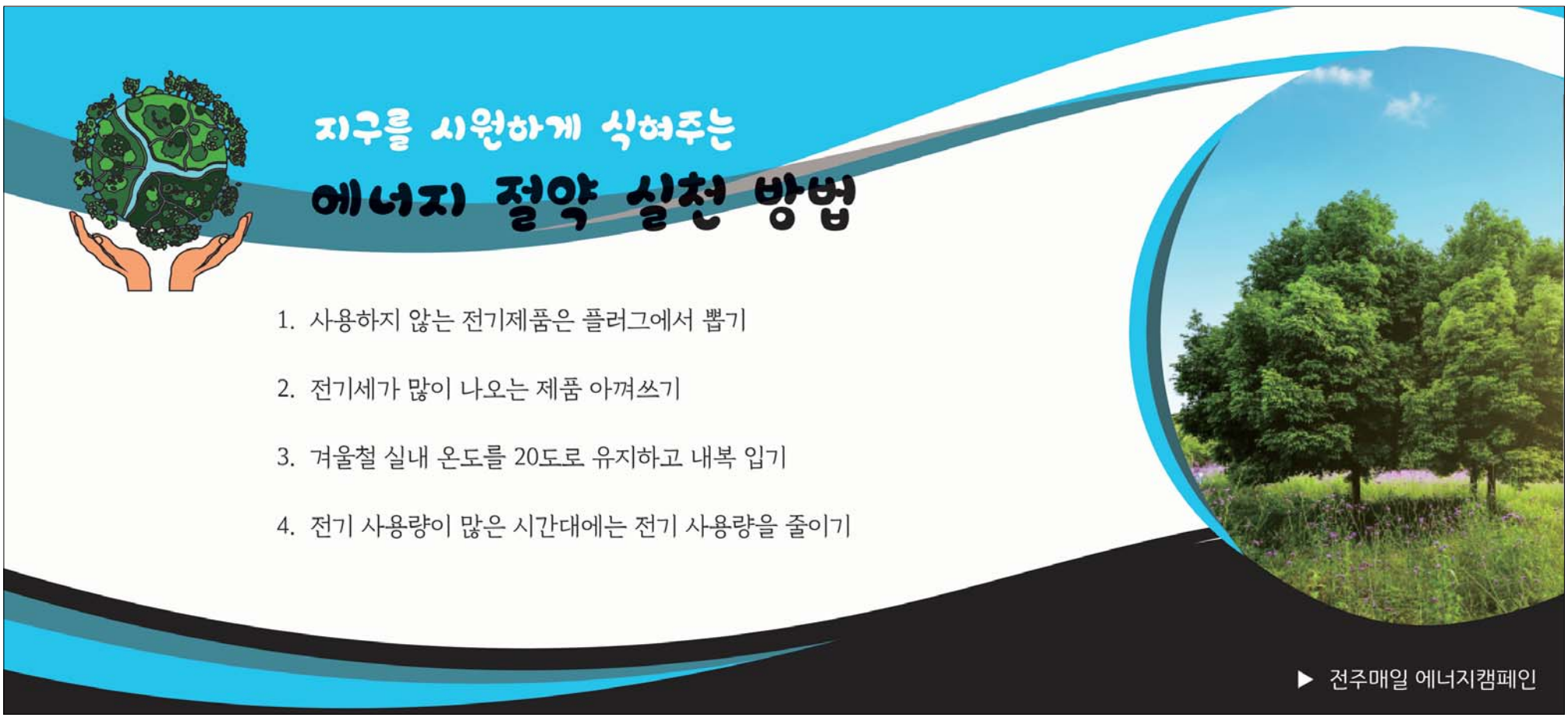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심덕섭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현지 전략회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6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심덕섭 군수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대응 현지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과장급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우선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을 만나 고창군 최대 현안인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심 군수는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서해안권 산업 물류비용 대폭 절감, 국토균형발전 등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당위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고창군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결의문 채택, 군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며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심 군수는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을 만나 고창읍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사업(67억원) 선정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주택 노후화 및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교촌마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고창=김영식기자